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서 40:3-5; 베드로후서 3:8-9; 마가복음서 1:1-8

신앙인으로 살 때 항상 궁금하고도 고민되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식과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야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물질적이 아닌 영적 삶인 반면, 실제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 일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해결 방법을 찾기 이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사상의 출발인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인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할 사실은 물질적인 세속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해결책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똑같은 세

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 삶을 영위해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대전제 위에서, 그렇다면 거저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아이고나, 감사합니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않고, 다소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러한가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마 1:3) 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잘못된 길로 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열정으로 인한 신앙의 오만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결국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내가 대신해서 다 해드리려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예입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핵심을 정확히 깨닫기는 했으나 그 이후 그 은혜에 안주하며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서는 두 번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시작이 위로부터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에 일침을 가합니다.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 자체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복음 선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될 주

의 길을 적극적으로 예비하는 것이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양심의 신학자로 불리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길 예비의 출발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135년 전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온 후 22년이 되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계기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대부흥 집회의 시작이 당시 길선주 장로의 지극히 사적인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한국 개신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며 고백 하였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 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길 장로의 통회는 집회에 모인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으며, 그로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거저 주어졌지만, 거저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자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그만치 기원전 8세기 경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후 8백여년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리고 그 후 다시 2천년이 지나서 나만 잘 믿고 내가 정말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축복 사상이 팽배해진 작금의 21세기에도, 성경을 통해 세례 요한은 수 천년 동안 광야 곧 이 세상을 향한 한 소리가 되어 외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사 40:3-4).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수 천년을 내려오는 신앙인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구원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실천되어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막 1:6)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는 못하더라도, 본회퍼처럼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 순교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지지는 못하더라도, 길선주 장로를 위시한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지인 앞에서, 교인 앞에서 솔직히,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용감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솔직하고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나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바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그의 길의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어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비록 지났지만 그 때 내가 참 잘못했다고 나의 가족 앞에서, 지인 앞에서, 교인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사명을 용감히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2020. 12. 6.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